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3월 첫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세계의 女心 홀린 K뷰티... 강소기업이 이끈다

中, '한국산 화장품' 비관세장벽 높이냐

지금부터 진검승부, 2016 최후에 웃는 자는?

법령 정보 11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회원사뉴스 18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세계의 女心 홀린 K뷰티... 강소기업이 이끈다('16.3.1)

-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작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거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해외 유명 업체 수준으로 높아지고 한류 확산에 힘입어 신흥시장과 선진국에서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뛰어난 개발 능력과 제조 역량을 갖춘 전문 ODM(제조사 개발·생산) 업체들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임
- 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2/2016030200480.html

K-뷰티 화장품, 러시아 뷰티 시장 진출 지금이 적기...경제 침체로 중저가 브랜드 수요 급증('16.3.2)

- 한국무역협회는 2일 '러시아 뷰티시장, 지금이 진출 적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K-뷰티로 유명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가 진출할 적기로 진단했음
- 또한 환율 영향으로 러시아 현지 수입제품 가격 인상에 따라 현지 기업 및 한국 등 중저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강세를 띠고 있다고 내다봤음

- 관련링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3021748562090782_1/article.html

'K-뷰티'의 착각...中 화장품 80% 불법 유통('16.3.2)

-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이민호 KOTRA 상하이 무역관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한류(韓流)로 인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한국 화장품의 신뢰도 역시 높아졌지만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제품”이라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해외 유명 업체 수준으로 높아지고 한류 확산에 힘입어 신흥시장과 선진국에서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뛰어난 개발 능력과 제조 역량을 갖춘 전문 ODM(제조사 개발·생산) 업체들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임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0211250402560>

中, '한국산 화장품' 비관세장벽 높이나 ('16.3.2)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를 수정 중이며, 머지않아 화장품 관련 법규의 상당한 변경이 예상됨
-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K뷰티’가 붐을 일으키며 한국산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0%에 이르며, 특히 가격이 중고가인데다 선호도가 높아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관련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02000482>

중국으로 달려가는 화장품업체들...매장 확대 가속도 ('16.3.7)

- 중국에서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큰 가운데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올해도 브랜드숍 형태의 현지 매장을 대거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국에 진출한 이니스프리(아모레퍼시픽)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미샤(에이블씨엔씨) 등 국내 3대 브랜드숍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음

- 관련링크: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3>

'비싸도 산다' 한국 화장품·의류 미국 유럽 매장도 점령 ('16.3.6)

- 미국, 일본, 독일 등 9개 선진국 유통점에 진출한 한국 소비재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결과, 저가 경쟁력이 아닌 품질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 6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선진국 유통점 진출에 성공한 한국의 소비재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유명 유통점에 진출한 42개 상품 가운데 64.3%인 27개 상품의 성공요인으로 우수한 품질이 1위로 꼽혔음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593363>

코리아나, 중국 화장품시장 잡는다 ('16.3.3)

- (주)코리아나화장품천진유한공사는 중국 천진법인 신공장 준공 완료에 따라 중국 유력 유통업체들과 계약 및 MOU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 코리아나화장품은 제2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제2공장 부지 확보와 신축 시공을 계획 중이며, 중국 천진 신공장은 최첨단 제조 및 포장 설비를 설치했으며 공장준공검사를 완료했음

- 관련링크:

<http://www.ebn.co.kr/news/view/819376>

지금부터 진검승부, 2016 최후에 웃는 자는? ('16.2.25)

- 각 업체의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더페이스샵이 6,291억원의 매출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이니스프리(5,921억원), 에이블씨엔씨(4,079억원), 잇츠스킨(3,096억원), 네이처리퍼블릭(2,800억원), 에뛰드하우스(2,578억원), 토니모리(2,199억원)가 뒤를 이었음(네이처리퍼블릭은 잠정치)
- 런 가운데 화장품업계는 2016년이 브랜드숍 진검승부의 원년으로 보고 있고,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정부가 타이공 등 비공식 수입 경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편법이나 요행이 아닌 제대로 된 유통과 마케팅으로 임해야 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0993/cat/10/page/1>

높아진 만리장성 ... 인천화장품 수출 '뚝' ('16.3.2)

- 중국의 까다로운 화장품 위생허가절차와 보따리상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인천 화장품의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4월 3700만 달러에 달했던 인천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보따리상 유통 규제가 시작된 5월 이후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었음
- 관련링크: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96105>

◦ 국내외 정보

□일본 후생노동성(MHLW), 트리스비페닐 트리아진 사용규제 개정(안) (2016.2.19)

-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WTO/TBT 통보문을 통해 화장품 표준 부록 4-1 (자외선 흡수제의 포지티브리스트)에 트리스비페닐 트리아진(Tris-biphenyl triazine)을 추가하여 최대농도 1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임
- 채택 및 시행 예정일은 2016년 4월 28일임
- Appendix 4-1에 다음의 원료가 추가됩니다.

Ingredient name	Maximum amount (g) of ingredient per 100g
Tris-Biphenyl Triazine	10.0

- 자료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JPN/16_0677_00_e.pdf

○ 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 직장여성 증가와 남성용 화장품 신규 수요 창출로 지속 성장세 -
- 최근 말레이계 여성 소비자들의 할랄 인식 및 선호도 증가에 적극적 대응 필요-

□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및 수요동향

○ 말레이시아 직장인 여성 증가로 화장품 시장 수요 증가 중

- 직장인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구매력도 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화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의 주요 고객

- 중산층은 대중적인 브랜드를 고소득층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을 떠받치고 있음.

○ 매출 성장 사례: 입술용 화장품(Lip products) 시장 성장

-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립글로스를 비롯한 입술용 화장품군에서의 매출만 2014년에 5%가 성장한 2억2700만 링깃 규모였다고 함.
- 이러한 성장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 출시됐고, Alliance Cosmetics과 L'Oréal(M) 같은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호응한 결과임.
- 일부 무슬림 소비자들은 입술 화장품 소비에 있어서도 '할랄' 제품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음.
- 무슬림법에 따르면, '할랄' 제품 사용이 권장됨. 예전에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없었으나 최근 '할랄' 인증 제품들이 나오면서 무슬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BB크림 등 최근 유행상품에 이어 남성용 화장품 틈새시장 부상

- 얼굴용 화장품인 BB크림이나 쿠션 그리고 CC 크림 등이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얻어 왔음.
-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 남성들도 외모관리에 관심이 늘면서 관련 화장품 매출이 늘고 있음.

○ 꾸준히 지속되는 한국 화장품 인기

- 아모레퍼시픽의 31개 브랜드 제품군 중 라네즈,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이미 4개 브랜드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해 있음.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법인의 GM인 Margaret Chin에 따르면 '라네즈' 브랜드의 매출은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함.
- 또 다른 브랜드인 '이니스프리'도 2015년 출시 9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성장하는 실적을 거두었음.

□ 주요 화장품 시장 및 경쟁기업

○ 아직도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은 미국 및 유럽 브랜드들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주요 한국 화장품들의 진출도 고급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상황임.

○ 다만, 말레이시아의 국내 브랜드인 Silkygirl이 미국계 화장품 기업으로 2011년부터 시장 선두를 유지해온 Avon Cosmetics을 제치고, 2014년에 시장 선도기업으로 부상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함.

2011~2014년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TOP10 기업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브랜드명	기업명	2011	2012	2013	2014
Silkygirl	Alliance Cosmetics Sdn Bhd	9.9	10.1	10.7	10.8
AVON Color	Avon Cosmetics (M) Sdn Bhd	14.7	13.5	11.1	10.4
Maybelline	L'Oréal (M) Sdn Bhd	8.3	8.3	8.5	8.4
L'Oréal Paris	L'Oréal (M) Sdn Bhd	7.8	8.0	8.3	8.3
Revlon	Revlon Inc	6.9	7.0	7.1	7.2
Estée Lauder	Estée Lauder Cos Inc	4.7	4.7	4.8	4.8
Mac	Estée Lauder Cos Inc	4.0	4.1	4.2	4.2
Artistry	Amway (M) Sdn Bhd	3.7	3.9	4.0	4.0
Bobbi Brown	Estée Lauder Cos Inc	3.8	3.8	3.9	4.0
Lancôme	L'Oréal (M) Sdn Bhd	3.7	3.7	3.7	3.7

자료원: 유로모니터

□ 말레이시아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일단 자리잡은 브랜드에서 신규 제품이 출시되면 초기에는 새로운 상품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고객의 특성상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됨.
- 하지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브랜드들은 자리를 잡는 데 많은 애로를 겪게 됨.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좋으므로 적정한 가격대의 신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가 잘 연계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특히, 최근 들어 말레이계 여성 소비자들의 할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서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특히 입술 화장품과 향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함.
- 한국 이슬람중앙회(KMF)에서 심사해 발행하는 ‘한국 할랄인증’도 2014년 6월부로 말레이시아 종교부(Department of Malaysia, JAKIM)에서 현지 유통을 허용하는 할랄인증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현지 일간지(The Star), 종교부(JAKIM)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법령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호, 2016.03.1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법령상 적용 조항을 명확히하는 등 개별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 추세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함
-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한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는 자도 판매자에 해당함을 규정함(안 제20조)
- 혼합·판매하는 경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의2)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3월 25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령(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7호, 2016.03.10.)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로운 판매형태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판매하는 화장품과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맞춤형화장품 혼합행위와 무등록 제조행위의 구별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혼합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8항)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3월 25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4호, 2016.03.1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함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문 중 ‘2차포장 및 표시’ 삭제(안 제2조
제2호)
 - “제조”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혼합하는 행위 제
외(안 제2조제2호)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6년 3월 25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상기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우리 협회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4,5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33개의 화장품 성분명을 표준화하였다.

연번	성분명	영문명
1	눈꽃동충하초균사체/진흙버섯발효추출물	
2	느티만가닥버섯추출물	
3	레몬꽃/잎/줄기추출물	Citrus Limon (Lemon) Flower/Leaf/Stem Extract
4	레몬버베나꽃수	Lippia Citriodora Flower Water
5	레몬캘러스배양추출물	Citrus Limon Callus Culture Extract
6	바바수오일폴리글리세릴-4에스터	Babassu Oil Polyglyceryl-4 Esters
7	밤나무꽃추출물	Castanea Crenata (Chestnut) Flower Extract
8	복분자딸기씨추출물	Rubus Coreanus Seed Extract
9	상수리나무수액	Quercus Acutissima Sap
10	서양톱풀오일	Achillea Millefolium Oil
11	수국뿌리추출물	Hydrangea Macrophylla Root Extract
12	실리콘쿼터늄-16/글라이시독시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Silicone Quaternium-16/Glycidoxy Dimethicone Crosspolymer
13	아우레아 헬리안투스꽃추출물	
14	아우레아 헬리안투스추출물	
15	야광나무캘러스배양추출물	Malus Baccata Callus Culture Extract
16	약모밀잎수	
17	올리고펩타이드-126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Oligopeptide-126 sh-Oligopeptide-1
18	월계수잎오일	Laurus Nobilis Leaf Oil
19	이리추출물	Milt Extract
20	자란캘러스추출물	Bletilla Striata Callus Extract
21	참당귀뿌리가루	
22	캐나다솔송잎오일	Tsuga Canadensis Leaf Oil
23	캥거루애플열매즙	
24	타임잎오일	Thymus Vulgaris (Thyme) Leaf Oil
25	파피루스잎세포추출물	Cyperus Papyrus Leaf Cell Extract
26	팩스추출물	FAEX EXTRACT
27	폴리우레탄-62	Polyurethane-62
28	프로타민설페이트	Protamine Sulfate
29	플랫레몬껍질수	
30	플랫레몬껍질오일	Citrus Depressa Peel Oil
31	피마자뿌리추출물	Ricinus Communis (Castor) Root Extract
32	하이드롤라이즈드스위트아몬드씨드케이크	Hydrolyzed Sweet Almond Seedcake
33	하이포클로로스애씨드	Hypochlorous Acid

○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중국 온라인(알리바바) 신고플랫폼 활용 교육 안내**

- 일 시 : 2016. 3. 25(금), 14:00~16:30
- 장 소 :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여의도 소재)
- 주 제 : 중국 온라인(알리바바) 신고플랫폼 활용
- 개최목적 : 중국 인터넷 쇼핑몰(알리바바)에 유통되는 불법 모조품관련 피침해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지재권 신고를 통하여 우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함
- 참석대상 :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관심기업 담당자 10여명
- 세부일정

교육내용		진행시간(분)	비고
이론	알리바바 지재권 신고 플랫폼 소개	10	PPT 자료 활용
	주요 온라인 피침해 유형/사례 및 차단효과	10	
	보호원 알리바바 지원사업 소개 * Good Faith Takedown 제도 포함	10	
실습	기업별 중문 모니터링 키워드 발굴	10	각 개인별 PC로 실습 진행
	타오바오/티몰 모니터링 요령 실습	15	
	신고 플랫폼을 통한 신고방법 시연	15	
질의응답		20	-

※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jenko@kcia.or.kr, 02-761-4203)

※ 협회 홈페이지(www. 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전시회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in-cosmetics Europe 2016	2016.04.12~04.14	프랑스(파리)	모집중
2016코스모뷰티베트남전시회	2016.04.21~04.23	베트남(호치민)	모집완료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2016.05.18~05.20	중국(상해)	모집완료
2016중국광주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6.09.04~09.06	중국(광주)	
2016홍콩화장품미용박람회	2016.11.16~11.18	홍콩	

○ 「2016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 발행 안내

○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수출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원료생산·취급자를 비롯하여 화장품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2016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를 발행하였습니다.

○ 디렉토리 국문판은 인쇄물로 발행되었으며, 디렉토리 영문판은 해외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웹사이트(<http://directory.kcia.or.kr>)로 구축하였으니 동 자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각 책자의 세부 목차 확인과 구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대한화장품협회’ → ‘발간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관련 문의 : 070-7858-0564)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신규 회원사 소개



환인제약(주)

회 사 명 : 환인제약(주)

대표자명 : 이원범

설립일자 : 1978년

종업원수 : 443명

품목 및 브랜드 : 더마링크림

자 본 금 : 9,700백만원

유통채널 : 시판

웹사이트 : www.whanin.com

연 락 처 : 02-405-3000

회사소개

“우리의 발전을 통하여 건강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1978년에 설립된 우리회사는, 품질이 우수한 "좋은 약"만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건강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사회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기업공개를 통하여 명실공히 "알차고 튼튼한" 국민의 기업으로서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첨단 GMP 공장에서 조현병 치료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뇌전증 치료제 (항전간제), 알코올 중독 치료제 등의 특화된 신경정신과 영역 치료제를 비롯하여 현재 약 80여종의 다양한 치료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연구 개발과 정도 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Vision 2050”이라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에스테틱 사업 분야 진출, 글로벌시장 개척 등 새로운 사업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작성방법 : A4 1매 이내(줄간격 180, 글씨 12포인트 기준)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